

# 2024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언어의 바다에서 유명하기

이름	윤아경
전공	정치외교학과
학번	20200445 윤아경
참여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1-on-1코칭 (담당교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글말특강 (9회차)

## 언어의 바다에서 유명하기

20200445 윤아경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고자 한다. 나는 말을 못 한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니니까 ‘잘’ 못한다고 하자. 나는 말을 잘 못 한다. 손을 들고 발표 점수를 얻어야 하는 수업에서는 항상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고 토론 수업은 꿈도 못 꾸다. 발표가 있는 강의에서는 대본이 없으면 꼼짝없이 얼어붙고 만다. 어릴 적 외국에서 몇 년 살다 온 것도 아니고 꼬박 20년이 넘는 세월을 한국에서 보냈는데도 그렇다. 장강명은 저서 『책, 이게 뭐라고』에서 사람의 유형을 크게 ‘듣고 말하는 인간’과 ‘읽고 쓰는 인간’으로 나누는데 여기서 나는 명백히 후자다. 온종일 무언가를 읽고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자와 가깝게 지내는 편이다. 그러나 말하기로 필드가 넘어오는 순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무언의 기시감이 엄습해온다. 이를테면 나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말하는 나’를 의식한다. 그렇게 자신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음... 그러니까....’ 말을 더듬게 되고 결국 상대와 원활한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다.

왜일까? 일본에서 나고 자란 하루키는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한다. “묘한 애기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한해 말하자면, 일본어로 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하는 쪽이 오히려 마음 편하다.” 이어서 그는 말한다. “그것은 대개 일본어로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면 자신이 언어의 바다에 삼켜져 버리고 말 것 같은 감각에 휩싸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무한한 선택지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나 역시 모국어보다 영어로 말하기를 선호하고 “언어의 바다에 삼켜져 버리고 말 것 같은 감각”에 자주 휩싸이는 사람으로서 해당 구절을 읽으면서 격하게 공감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이상, 나는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과 계속 말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국어로 ‘잘’ 말하는 법을 익혀두지 않으면 안 된다. <글말교실>을 듣게 된 건 그런 이유에서다.

내가 들은 강의는 (따라서) 말하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말투와 이미지는 같고 닳을수록 좋다’라는 제목의 강의였다. 강의를 들어가면서 선생님은 말한다.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어서 선생님은 말한다. 말하기의 뒷받침이 되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돌아보니 그간 나는 입을 떼기도 전부터 지레 겁을 먹는 경우가 많았다. 말을 못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자꾸만 입을 다물고 몸을 움츠리고 활자의 세계로 도망쳤다. 그러나 도망한 곳에 언제나 구원과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말하기’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말하기 전부터 겁먹기보다 ‘나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웬지 모르게 없던 자신감도 솟아날 것만 같다... 선생님의 조언대로 말하기 속도에 리듬을 넣거나 말의 강약과 음질,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끝으로 선생님이 전해 준 말 가운데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다. “자신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잘 말하기’ 못지않게 ‘진정성 있는 말하기’를 갈망하는 나로서는 결국 자신감이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언어의 바다에 삼켜져 버리고 말 것 같은 감각”에 자주 휩싸이는 내게 이번 강의를 언어의 바다에서 유명하는 나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